

지역특화 맛집 브랜드 발굴 '앞장'

롯데백 전주점, 익산 에스닭강정 백화점 최초 팝업 어려움 겪던 지역업체와 손잡고 브랜드화 펼치기로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내일부터 4월 14일까지 지하1층 식품관 행사장에서 백종원의 3대천왕에 출연한, 지역 맛집 익산 에스닭강정을 백화점 최초 팝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에스닭강정은 오징어 먹물로 만든 새까만 블랙 닭강정으로 기존 닭강정과는 다른 맛과 비주얼을 선사하는 만큼 속초 만석닭강정, 영월 일미닭강정과 함께 전국 3대 닭강정으로 지역 내 유명 닭강정 브랜드이다.

또한,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기존 시그니처 메뉴인 오징어 먹물 블랙닭강정과 순한맛, 매운맛은 물론 이번엔 새롭게 선보이며 간장맛까지 총4가지 맛으로 고객에게 찾아갈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1월 지역장 체제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동안 지역특화 맛집 브랜드 발굴에 힘써왔다.

익산 에스닭강정은 새로 생긴 호남, 충청지역장에서 새롭게 발굴한 지역 맛집으로 28일 전주점을 시작으로 4월1일 광주점 오픈을 비롯해, 이후 서울, 부산등 전국적으로 팝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호남충청지역 MD팀 권병진바이어는 "지속적인 지역 유명 맛집의 유치는 백화점과 지역 맛집 간 상생의 기반이 된다"며 "지역민의 정서에 맞는 경쟁력 있는 지역 토종 브랜드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내일부터 4월 14일까지 지하1층 식품관 행사장에서 지역 맛집 익산 에스닭강정을 백화점 최초 팝업을 진행한다.

수표 대신 인터넷뱅킹... 소액결제 2281만건 '사상 최대'

지난해 수표 이용은 줄고 인터넷뱅킹 등 사용은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평균 소액결제 건수는 전년 대비 7.1% 늘어난 2281만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건수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일평균 2281만건이다. 결제금액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67조원이다.

이중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이용한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1805만건과 5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4%와 9% 올라갔다.

한은 관계자는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핀뱅킹 이용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건수와 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소액결제 시스템 중 자기앞수표나 어음 등 어음교환시스템 이용은 크게 줄었다. 어음교환시스템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32만8900건을 기록했다. 자기앞수표 이용이 22% 줄어든 32만 1000건이 됐고 약속어음 등은 11.4%

내려간 6000건이다.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 발행으로 자기앞수표 이용도 줄고 전자방식 지급수단 대체로 인해 약속어음 이용도 적어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은행간 거래인 거액결제 규모도 늘었다. 한은 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지난해 일평균 34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다. 이는 증권자금 결제가 12.3% 증가한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결제 규모는 일평균 15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이중 장내결제 규모는 전년보다 11.4% 증가한 2조3000억원이다. 장외결제 규모는 17.2% 늘어난 155조3000억원이다. 한은은 결제 규모 확대에 따라 지급결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중에는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급결제정보시스템(DW)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올해 저축은행 · 여전사 DSR 본격 도입... 내부감사협의제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본격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부가통신업자(VAN사·벤사)가 중소서민금융으로 분류된다. 중소서민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올해 감독방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리스크 대응, 포용금융 확대, 금융혁신 지원 및 신뢰제고 등 크게 세가지 방향 등 크게 세 가지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안정화와 질적개선에 나선다. DSR의 관리지표 도입이 대표적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리지표로 도입해야한다. 금감원은 관리업종 운용 및 자금용도의 유용

점검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중소서민금융사들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RTI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질적개선을 위해서는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도입한다. 상호금융은 기존 비중을 확대한다.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 차원에서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세부기준 마련 작업에 들어간다. 상호금융에는 유통성 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신규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판매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업무기준도 마련한다. 여전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신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가 합리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불건전 영업관행을 찾아내 개선하고, 여전사와 대부업을 중심으로 금융약관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상호금융은 업권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제정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 업무보고서를 신설하고,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와 표준상품 설명서 교부 실태를 점검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예고된 대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도 올해 중 마련한다. 여전사들을 대상으로는 신용등급간 금리역전이나 고객차별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기로했다.

공시 등 정보공유 확대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수수료 등 비교공시 항목을 개편하고, 특히 여전사의 신용카드 이용 유의사항, 부가서비스 관련 상품안내장 표시 방법 등을 개선한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현장점검과 교육 강화 등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특히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저축은행은 적용대상을 지난해 20개에서 올해 30개로 확대하고, 캐피탈사도 내부감사협의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탁과 농협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혁신 차원에서는 새로운 사업영역과 시장을 개척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축은행의 부대업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대면 정기예·적금 단기 복수계좌개설도 허용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의 신용결제수단 활성화도 독려한다. 설명회에는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부에서는 김영주 금감원 저축은행 감독국장이 올해 감독 방향을 설명했고, 2부에서는 업권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점진성은 물론이고 가격 측면에서도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한다"며 "오늘 주신 의견은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갈것다"고 말했다. /뉴시스

거실에 화분, 미세먼지 20%정도 줄여

농촌진흥청, 4년간 실내식물 대상 연구 결과 발표

거실 20㎡ 규모에 잎 면적 1㎡의 화분 3~5개가 있으면 초미세먼지가 2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농촌진흥청이 4년 동안 여러 종의 실내식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식물이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실험은 챔버에 미세먼지를 공기중으로 날려 3시간 가량 둔 뒤 가리웠던 큰 입자는 제외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로 식물 있는 밀폐된 방과 없는 방에 각각 넣어 두고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실험결과, 미세먼지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화 기기를 이용해 식물이 있는 방에서 초미세먼지가 실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초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식물도 선발했다. 이는 잎 면적 1㎡ 크기의 식물이 4시간 동안 줄어든 초미세먼지 양 기준이다.

우수한 식물은 파키라(4시간 동안 줄어든 초미세먼지 양 155.8μg/㎡), 백량금(142.0), 멕시코소철(140.4), 바퀴란(133.6), 울마(111.5) 5종이다.

농진청은 초미세먼지 '나쁨'(55 μg/㎡)인 날 기준으로 20㎡의 거실에 잎 면적 1㎡의 화분 3~5개를 두면 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현미경으로 잎을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율적인 식물의 잎 뒷면은 주름 형태, 보통인 식물은 매끈한 형태, 효율이 낮은 식물은 표면에 잔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명일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우수한 식물 선정과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사무공간과 학교에 적용하는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과제로"

김제농협 조합장 취임식 열려 압도적 지지로 이정용 재선

김제농협 제15대 조합장에 당선된 이정용 조합장 취임식이 26일 농협은

행 김제시지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은 이정용 조합장의 소신에 따라 당면한 농업·농촌·농협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외적인 위변 참석없이 조합원, 대의원, 임원 12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내실있고 엄중하

게 진행됐다. 이정용 조합장은 취임사에서 대형 하나로마트와, 월촌지점 신축이전, 신용사업규모 7천억원 달성, 농협의 정체성 확립, 6차 산업육성, 본점청사 신축, 노후지점 현대화,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 확보, RPC시설 현대화 등의 공약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조합원과 소통하며 투명하고 정직한 조합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3천350명의 조합원 중 2천710명이 투표한 가운데 2천 216표(78.62%)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재선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김제=박노태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